〈전북노동정책연구원 2025년 세미나 2〉

자본주의 노동과 시간, 그리고 대안적 가능성

: 이론과 삶을 연결하며 숨 쉴만한 삶으로

▣ 목표

극심한 폭염, 난데없는 추위, 전례 없는 폭풍과 쓰나미, 숫자로 환산되는 죽음을 안고 기후재난이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학살하고 문자 그대로 굶겨 죽이는 동안 국제사회는 방관합니다. 트럼프는 취임 첫날부터 트랜스젠더와 이민자를 추방하겠다고 대놓고 선언했고, 추방과 체포와 시민권 박탈은 트럼프 정부의 최전선에서 무기가 되어 날뜁니다. 유럽에 전쟁과 테러, 폭력으로 급증한 난민이 몰려들자 극우주의 세력은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매일 누군가 죽고, 밥을 먹다가 핸드폰을 집어 들면 누군가 죽었다는 소식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경험하는 폭력은 세계적인 불안과 위험 속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문제가 된듯합니다. 사실, 그것보단 당장 접한 소식에 내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을 고민하는 게 합리적이며, 그래서 사람들은 주식과 비트코인을 삽니다.

세계의 위기는 기업가적 존재로서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개인들에겐 기회입니다. 이윤을 극대화하고 내 삶을 효율적으로 재구성할 기회. 신자유주의적 개인들에게 비효율적인 개체들을 사회에서 잘라내는 일은 시장 내 자신의 입지가 늘어난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사회적 비용을 만들어내고, 능력도 없이 무임승차하며, 때로는 위험한, 나와 만난 적도 없고 딱히 만날 일도 없으며 만나고 싶지도 않은 뒤떨어진 존재를 제거하는 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의 위험(risk)을 조금이라도 통제 가능한 영역으로 끌어들이려는 행위입니다. 효율의 시대(리프킨, 2022)란 그런 것입니다. 합리적인 이성, 문명, 발전, 진보의 언어로 무장한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체제가 제시하는 통제 가능한 삶이란 그런 것입니다.

인류는 왜 이런 상황과 마주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왜 12.3 계엄을 겪어야 했을까요? 너무나 작은 '나'는, 이 불운하고 불안한 세상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을 찾기 위해 세미나를 시작합니다. 이 세미나는 극우와 신자유주의가 삶에 체념하게 만드는 세상 안에서, 한 트랜스젠더가 광장에서의 커밍아웃을 통해 작은 목소리들과 연결되고 그 목소리를 체제에 대한 저항으로 의미화할 수 있게 되기까지의 이론적 자원을 함께 탐색합니다. "광장 이후, 전주(전북) 퀴어들의 일과 삶 말하기 글방"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의미화하는 작업에서 던져야 했던 질문들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지금-여기의 세상을 지배하는 권력**은 어떤 형태이며, **우리의 삶-죽음을 어떻게 통제**하는가?
2.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극우 정치와 능력주의가 작동하는 사회 안에서 개인의 **'몸짓'**은 어떻게 대안세계로 향하는 **가능성**을 만들어내는가?
3. 그러한 가능성이 조각나고 뿔뿔이 흩어져, 의미화되지 못한 채 사그라지지 않으려면 노동과 운동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언어도 목소리도 되지 못한 채, **그저 죽음으로 향하는 웅얼거림(murmuring)과 떨림, 증언(testimony)을 삶으로 모아내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전 지방-퀴어-청년-노동-연구-활동이라는 취약성과 교차성을 드러내며 당신을 초대합니다. 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읽고, 듣고, 때론 그저 떨고 있을 뿐인 몸을 기대며 '살아내는(lived)' 방법을 함께 고민하려 합니다. 주제에 관심 있는 분들을 기다립니다.

▣ 진행 방법

▷ 문의 : 조용화 연구위원(010-6419-2499)

▷ 모든 '읽을' 글은 사전에 제공됩니다.

▷ 밀도 있게 읽고, 이야기 나눕니다. 때로는 씁니다. 만남 주기는 참여자들과 함께 정합니다.

▷ 이론과 삶 세미나에는 발제자 대신 문지기를 둡니다.

우리에겐 각자 살아가기 위해 만든 자기만의 방(버지니아 울프, 1929), 내 글로 이어지는 삶을 연결할 수 있는 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문은 생김새도, 마주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문지기는 함께 읽고, 쓰고, 이야기 나누기 위해 "이런 문도 있음"을 안내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그 문 앞에서 읽어낸 것을 말하고, 쓰고, 듣기 위해 자신의 문을 안내합니다.

문지기는 원하는 형태로 안내문을 가져옵니다. 격주 모임마다 문지기를 맡고 싶은 이들을 정하고, 맡을 사람이 없다면 조용화 연구위원이 문지기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 나눌 이야기

○ 사전 모임 : 불안한 지금-여기, 구조를 생각하는 이론들의 지도 그리기

① 읽고 대화 나누기

- 〈21세기 사상의 최전선 : 전 지구적 공존을 위한 사유의 대전환(김환석 외, 2025)〉
  들어가며 : 21세기 사상의 최전선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18쪽)
- 〈모이셰 포스톤, 시간과 노동 그리고 사회적 지배(정용택, 2025)〉 : ~18쪽
  비판이론을 비판하는 비판이론(~18쪽)
- 〈아픈 여자 이론(요한나 헤드바, 2016)〉 : https://off-magazine.net/TRANSLATE/hedva.html

○ 첫 번째 질문. 지금-여기의 세상을 지배하는 권력은 어떤 형태이며, 우리의 삶-죽음을 어떻게 통제하는가?

1주차. 자본주의가 통제하는 시간과 공간 : 지금-여기를 분석하기 1

① 읽기

- 〈자본주의는 당연하지 않다(데이비드 하비, 2021)〉 : 7~56쪽
- 〈신자유주의와 인간성의 파괴(리처드 세넷, 2002)〉 : 7~59쪽
- 〈좌파의 길 : 식인 자본주의에 반대한다(낸시 프레이저, 2023)〉 : 6~24쪽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자본주의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먹어치우는가 – 좌파의 길 서평(김만권, 2023)〉

② 쓰기

- 아래 질문에 대해 각각 한 문단, 또는 한 장 쓰기
  "나는 지금-여기의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불안한 세계를 '나'는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나?"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는 이야기들을 나는 어떻게 바라보는가?"

2주차. 자본주의가 통제하는 시간과 공간 : 지금-여기를 분석하기 2

① 읽기

- 〈모이셰 포스톤, 시간과 노동 그리고 사회적 지배(정용택, 2025)〉 : 19~171쪽
- 〈신자유주의와 인간성의 파괴(리처드 세넷, 2002)〉 : 198~215쪽

  우리, 그 위험한 대명사 : 표류하는 삶을 구조하는 수단
- 〈포스트모던 도시에 대한 사회학적 탐색 – 몸, 공간, 정체성(서영표, 2018) : 7~24쪽

  1. 머리말
  2. 도시와 공간에 대한 사회학적 관심
  3. 포스트모던 공간과 도시(7~24쪽)

② 쓰기(택 1)

- 읽은 글에 대해 한 문단, 또는 한 장 쓰기
- 주제어를 골라 한 문단, 또는 한 장 쓰기

  자본과 노동

  이 세계에서 자리 없는 이들의 감각 : 표류, 부유감, "증발하고 싶은 여자들"

  응답하기

3주차. 삶과 죽음의 생명정치 : 신자유주의 통치성과 자유로운 개인

① 읽기

- 〈푸코 통치성으로 본 복지국가의 기원과 그 사회적 효과(김용현, 2019)〉
- 〈좌파의 길 : 식인 자본주의에 반대한다(낸시 프레이저, 2023)〉 : 217~258쪽

  5장. 도살당하는 민주주의: 정치와 경제의 분할(왜 정치 위기는 자본에게 붉은 살코기인가)
- 〈기다리는 시간 제거하기 : 음식 배달앱 이동 노동 실천에 관한 연구(채석진, 2021)〉

② 쓰기

- 주제어를 골라 한 문단, 또는 한 장 쓰기

  신자유주의 통치성

  '당연하다' 또는 '자연스럽다'

  일상

4주차. 능력 있는 자들의 자유와 극우 정치

① 읽기

- 〈신자유주의 질서 속 자유의 내재적 문제(김만권, 2016)〉
- 〈이동과 자유: 자유주의적 통치와 모빌리티의 계보학(하가르 코테프, 2022)〉 : ~70쪽

  서문~서론 : 체제, 이동/운동, 주체/몸, 짧은 계보학, 테크놀로지(~70쪽)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혐오의 정치학'에 대한 인문학적 이해와 해법(김만권 외, 2021)〉 : 25~32쪽

  · 〈지금 한국에서, TERF와 보수 개신교계의 혐오선동은 어떻게 조우하고 있나(나영, 2018)〉

② 쓰기

- 주제어를 골라 한 문단, 또는 한 장 쓰기

  예측할 수 없는 이동과 위험

  자유와 실패

  능력과 특권

○ 두 번째 질문.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극우 정치와 능력주의가 작동하는 사회 안에서 개인의 '몸짓'은 어떻게 대안세계로 향하는 가능성을 만들어내는가?

5주차. 취약성과 불안정성의 가능성 : 저항의 실천

① 읽기

- 〈위태로운 시대의 취약성 연구 : 취약성 개념의 초학제적 탐색(노대원 외, 2022)〉
- 〈장애여성공감 20주년 선언문(2018)〉

  https://wde.or.kr/20%EC%A3%BC%EB%85%84-%EC%84%A0%EC%96%B8%EB%AC%B8/
- 〈신스 인벨리드, 장애정의의 10가지 원칙〉

  https://slowlyaspossible.net/memoranda/1204/
- 〈실패의 기술과 퀴어 예술(잭 핼버스탬, 2024)〉 : ~62쪽

② 쓰기

- 아래 질문에 대해 한 문단, 또는 한 장 쓰기

"나의 취약함에 나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다른 이의 취약함을 만나면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나의 실패와 우리의 돌봄은 저항의 실천일 수 있는가?

"타인을 환대하는 공간은 어렵다. 하지만 환대를 바라고, 그런 공간을 원하기 때문에 만들어내는 작은 '몸짓'들로 의미화할 수 있는 것들이,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나와 내 주변에 있는가?"

6주차. 규범에 균열을 내는 몸짓들 : 실패하기, 탈주하기, 경계넘기

① 읽기

- 〈실패의 기술과 퀴어 예술(잭 핼버스탬, 2024)〉 : 179~248, 347~373쪽

  3장. 실패의 퀴어 예술(179~248쪽)

  6장. 실패에 생기를 불어넣기 – 끝내기, 도망가기, 살아남기(347~373쪽)

- 〈신자유주의와 인간성의 파괴(리처드 세넷, 2002)〉 : 171~215쪽

  실패 : 실패에 대처하는 법(171~197쪽)

- 〈포스트모던 도시에 대한 사회학적 탐색 – 몸, 공간, 정체성(서영표, 2018)〉 : 24~28쪽

  4. 공간과 몸, 그리고 권력(24~28쪽)

- 〈돌봄의 실패 속에서(하영, 2025)〉

  https://fwdfeminist.com/2025/05/07/vol-9-5/

② 쓰기

- 주제어를 골라 한 문단, 또는 한 장 쓰기

  실패의 기술

  살아가기 위한 동력 : 분노와 재미

  '제자리를 벗어난'

○ 세 번째 질문. 그러한 가능성이 조각나고 뿔뿔이 흩어져, 의미화되지 못한 채 사그라지지 않으려면 노동과 운동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언어도 목소리도 되지 못한 채, 그저 죽음으로 향하는 웅얼거림(murmuring)과 떨림, 증언(testimony)을 삶으로 모아내는 방법은 무엇인가?

7주차. 숨 쉴 만한 삶 : 고립된 죽음에서 어리석고 유치한 삶으로 – 숨쉬기와 떨림

① 읽기

- 〈팬데믹 시대의 숨쉬기에 관하여(채석진, 2021)〉 : 40~66쪽
- 〈포스트모던 도시에 대한 사회학적 탐색 – 몸, 공간, 정체성(서영표, 2018)〉
  5. 공간의 생산과 모순, 그리고 저항
  6. 맺음말(28~36쪽)
- 〈젠더 무법자(케이트 본스타인, 2015)〉 : ~23, 95~163쪽
  1장. 우선 말해 둘 것(~23쪽)
  3장. 힘 되찾기(95~163쪽)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퀴어가 되어 젠더무법자 다시 읽기(3장) - 젠더로 놀기 위해 질문을 던지고, 분노 대신 재미를 동력으로 삼는 젠더무법자 '문지기'로서의 삶(2025. 2. 18. 발제문)
  https://blog.naver.com/lux_65536/223765125460?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② 쓰기

- 질문을 골라 한 문단, 또는 한 장 쓰기
  "내가 둘러쌓여 있는, 또는 인지할 수 있는 공기의 형태는 무엇인가?“
  "숨 쉴 만한 삶을 위해, 내가 시도하고, 찾아내고, 기록하고, 마주치는 '규범에 균열을 내는 몸짓들'은 나와 어떻게 관계 맺을 수 있을 것인가?“
  "신자유주의에서 부유하는 개인들의 '떨림'이 매일 같이 경험하는 죽음, 어떤 것을 잘라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삶 속에서, 나의 취약함을 드러내는 순간 경험할 수밖에 없는 몸짓이라면, 그래서 결국 타인도 잘라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여기게 되는, 자신이 경험하는 죽음을 타인의 죽음으로 연결하는 극우 정치와 분리될 수 없는가? 떨리는 몸짓을 죽음에서 삶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8주차. 숨 쉴 만한 삶 : 고립된 죽음에서 어리석고 유치한 삶으로 – 매듭과 연루됨

① 읽기

- 〈Fwd, 엇박의 궤적들이 엮어가는 공간(이다은, 2025)〉
- 〈한 코 한 걸음(여다함, 2022)〉

  "뜨개질하는 행위는 **무한대로 감겨있는 실타래를 풀어 힘과 압력을 가해 모양을 결정짓는 일**이다."(1쪽)
- 〈연대하는 신체들과 거리의 정치(주디스 버틀러, 2020)〉 : 273~307쪽

  6장. 그릇된 삶에서 올바른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273~307쪽)
- 〈연루됨(조문영, 2024)〉 : 서문과 11부, 그리고 당신에게 맞닿은 글

  서문. 수사적 고향 너머

  11부. 지구-생활하기

  그리고 그 사이, 당신에게 맞닿은 글 읽기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Link웹진, 실패-쌓기(변다원, 2025.08.15.)와 그에 대한 코멘트(조용화, 추후 공유)

  https://limenlink.creatorlink.net/forum/view/1295473

② 쓰기

- 지금까지 써온 글들의 매듭을 찾아, 실패하고 미끄러진 리듬을 엮어, 연루된 글로 만들어내기.
- 서로의 글에 연루되는 글을 쓰기